

학교도서관에 대한 초·중등 학생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ceness Form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chool Libraries

이 병 기(Byeong-kee Lee)**

<목 차>

I. 서론	IV. 초·중·고 학생 간 차이 및 모형 검증
II. 장소성과 장소성 형성 요인	V.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설계	

초 록

학교도서관은 공간임과 동시에 장소이다. 가정과 집의 개념이 다르듯이 공간은 물리적 형태를 말하고, 장소는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개념이다. 초·중·고 학생은 사회적, 인지적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느낌 즉, 장소성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 학생 간에 장소성 형성요인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 이 장소성이 장소애착과 장소가치인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검증하였다. 590명의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설문 데이터는 SPSS 19와 AMOS 19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요소, 활동·행태적 요소, 심리적 요소 모두 초·중·고 학생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물리적 요소, 활동·행태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장소성은 장소애착, 장소가치인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소성, 장소성 형성

ABSTRACT

School Library is both a space and a place. The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place is the same as in the difference between house and home. Space may be described in terms of physical shape. Place is concept that formulated by personal experience. The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al stag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different, so the placeness or sense of place may be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formative factors of placeness and examine the process that those factors are connected to the results of the user behavioral intentions through the medium of place attachment, place value perception. The data are collected from 590 students and analyzed by SPSS 19 and AMOS 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hysical, active·behavio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 on placeness form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chool librar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more by physical factors, active·behavioral factors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confirmed the process that those factors are connected to the results of the user behavior through the medium of place attachment, place value perception.

Keywords: School librar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ary school students, Placeness, Placeness formulation

* 이 논문은 2015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논문접수: 2017년 5월 19일 •최초심사: 2017년 5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6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73-97,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6.73]

I. 서론

우리는 많은 공간을 거쳐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동일한 공간에 있다고 하여 모두가 동일한 인식, 동일한 느낌,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느낌의 차이를 장소라 하며,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장소감 혹은 장소성(placeness)이라 한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며 장소이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은 독서, 자료탐색, 휴식, 수업, 인터넷 이용, 친구 사귀기, 자원봉사, 독서상담 등 매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교육·문화의 복합 공간이다. 그러나 동일한 학교도서관 공간이라 하더라도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가 동일한 경험,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간임과 동시에 장소성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개념은 고객과 자본을 끌어들이 소비와 이용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학은 물론 관광, 문화, 건축, 사회학,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장소 혹은 장소성의 규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는 이유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장소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림으로써 방문객(소비자 혹은 이용자)에게 의식적인 애착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범수, 김희영, 박상훈 2008, 6).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장소성 그 자체에 관한 연구, 장소성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장소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소애착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정 지역 및 공간에 장소성을 적용한 연구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장소성 그 자체에 관한 연구로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한 초창기의 연구로써 Relph(1976)와 Tuan(1977)이 있다. Relph는 공간이 추상적, 기능적, 물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장소는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Tuan도 이와 비슷하게 낮은 추상적 공간은 경험을 통해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그 후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장소성은 무엇이며,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는 물리적·환경적·사회적·문화적 측면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최막중, 김미옥 2001; 홍경구 2009)

장소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소애착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들 간의 원인 결과 구조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남휘(2011) 등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성의 인과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소성이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이용하려는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에서는 장소성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지역을

목적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최막중, 김미옥 2001; 홍경구 2009; 은연정, 김시중 2010). 끝으로 특정 지역 및 공간에 장소성을 적용한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적용한 사례 연구이다. 한범수(2008) 등은 청계천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소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혜영(2014) 등은 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장소성 형성요인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장소애착을 매개로 하여 가치 지각과 관람행위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한편, 장소성과 관련한 도서관 분야의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eise(2004)는 장소로서의 도서관(the library as place)이라는 연구를 통해 도서관 가치의 역사적 변화를 탐구한 바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본론 부문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이정미(2010) 등은 심리적 인식 상태와 물리적 공간구조의 연결과정을 분석하여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구성에서 장소성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정호(2011)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 간의 영향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바 있고, 그 후 이정호(2012)는 다시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간, 장소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장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장소성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의 경우, 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정 연구자에 한해 한 두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장소성에 관한 연구의 범위는 대체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교육 및 도서관활용수업 등 교육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학교도서관은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이 장소애착, 장소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장소성이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형성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 학생은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 발달단계, 인지 발달 단계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소애착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초·중·고 학생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창출과 개선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핵심 이용자층인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규명하고, 이렇게 형성된 장소성이 어느 정도로 장소애착과 장소가치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로 나타나는지 그 구조와 초·중·고 학생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 24개 학교의 초·중·고등학생 600여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초·중·고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은 SPSS19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고, 장소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소애착, 장소가치,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표현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19를 각각 활용하였다.

II. 장소성과 장소성 형성 요인

1. 공간으로서의 도서관과 장소로서의 도서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간과 장소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집과 가정의 개념이 다르듯이 공간과 장소는 많은 차이가 있다. 넓게는 우주, 자연, 국가, 도시 등의 공간, 좁게는 아파트, 집, 학교 등의 건물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각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나 느낌은 모두 다르다. 공간 속의 장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어떤 사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같은 장소라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어떤 이에게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되기도 한다. 공간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만 장소는 개인적이고 변화 가능하다. 공간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겨지는 것은, 장소로 변화하고 장소는 개인의 관념의 대상이 된다. 3차원적인 공간에 머물면서 체험하고, 환경에 대한 본인만의 인식인 장소성을 갖게 되며,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이미지화된 기억으로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이민아 2015).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경험한 학교도서관에 대해 학생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 대한 느낌을 형성할 수 있다. 어떤 학생은 “멀리 산이 보이고, 따뜻하며, 조용하여 책을 읽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하며 웅장한 서가가 놓여있는 무서운 곳”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개인의 느낌이나 정서를 장소라 하며, 각각의 장소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장소성 혹은 장소감이라 한다.

공간은 空(벌 공)과 間(사이 간)으로 상하(上下), 전후(前後), 좌우(左右)로 끝없이 펼쳐 있는 빈 곳을 의미하며,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의 의미로 인간의 행위적 측면보다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장소는 어떤 활동을 수용하거나 들어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간에 의해 구획되고 한정된 곳을 의미한다(김미영, 문정민 2013, 191). 장소가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김민숙 2007). 장소가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가지며 주관 적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

한다면, 공간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담아낸다. 공간이 추상적, 기능적, 물리적 성격을 내포 하고 있는 반면, 장소는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인 성격을 지닌다(Relph 1976; 김혜영, 김세준 2014, 189).

마찬가지로 도서관 또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과 장소로서의 도서관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개정 발표한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IFLA, 2015)』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연구 및 학습 공간, 독서 및 열람 공간, 교수-학습 공간, 전시 공간, 매체 제작 및 모듬 학습 공간 등을 들고 있다(IFLA School Libraries Section Standing Committee 2015, 33). 이러한 공간은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벽, 기둥, 바닥 등의 건축적 요소를 바탕으로 구분해 놓은 물리적 시설물이다. 이 공간에 대해 개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의 공간속에서 활동하며, 공간을 특별한 의미의 장소로 만들어 간다. 학교도서관은 3차원적인 단순한 물리적 영역으로 정의되는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적된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 즉,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성의 형성과 장소성의 형성구조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학교도서관 이용 패턴 및 이용 의도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2. 장소성 구성요소와 장소성 형성의 구조

장소성은 특정 공간에 대한 개인의 활동이나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으로 장소와 개인, 집단,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나이, 성별, 직업, 계층, 종교, 인종, 가치 및 신념, 교육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장소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초창기 인물로 알려진 Tuan은 동질적인 공간은 우리가 그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장소가 된다고 하면서 공간이 장소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 장소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Tuan 1977). 또한, Relph도 장소의 구성요소를 인간의 활동과 의미, 그리고 정적인 물리적 장치의 3가지 요소로 보았고 여기에 시·공간적인 맥락이 결합되고 요소들 간의 상호 조합이 이루어져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장소의 특성을 제시하였다(김미영, 문정민 2013, 192).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장소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소애착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규명하려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Steele, Green 등이 있다. Steel(1981)은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물리적·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학적 상호관계로 설명하였고, Greene(1996)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다. 한편, 백선혜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로써 물리적·환경적 요소, 상대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백선혜 2004). 김혜영과 김세준은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하여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물리적 요소, 활동·행태적 요소, 심리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김혜영, 김세준 2014, 197-198).

한편, 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규명하려는 연구와 더불어 장소성이 장소애착, 장소 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가치 인식, 행위의도 등에 어떠한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즉, 장소성 형성구조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소애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들은 특정 환경과의 관계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사람과 특별한 장소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유대감 혹은 결속의 정도를 말한다(Giuliani, Feldman 1993, 267). 장소애착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으로 구성된다.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사고, 믿음, 의미, 행동 경향을 말하며(Proshansky, Fabian, and Kaminoff 1983),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에 장소의존성은 장소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요구와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Moore, Graefe 1994). 장소가치 인식은 특정 장소 혹은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나 활동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개개인의 인식을 말한다. 김혜영과 김세준은 박물관의 장소성 형성요인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장소애착을 매개로 하여 가치지각과 관람행위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하였다(김혜영, 김세준 2014, 185). 또한, Mathwick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고객이 형성하고 있는 장소성이 이용자가 느끼는 쇼핑몰의 가치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Mathwick, Malhotra, and Rigdon 2001, 43). 장소성과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행동의도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재방문, 다른 사람에게 추천 등의 형태를 보인다. 강도원 등은 장소성, 감정적 판단, 행동의도간의 인과구조를 밝힌 연구에서 장소성은 장소애착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강도원, 최창규 2012, 377). 김혜영과 김세준은 박물관 관람객의 지각된 장소가치가 높을수록 방문만족도, 추천의도, 재방문의사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김혜영, 김세준 2014, 186).

이와 같이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특정 장소의 장소성 형성 구성요소를 밝히거나 특정 장소의 장소성이 장소애착, 장소가치 인식, 행위의도 등에 어떠한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특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밝히고, 장소성과 장소애착, 장소가치인식, 행동의도간의 원인결과 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도서관 장소성에 관한 선행연구

Tuan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의미를 부여한 공간을 장소로 구분하고, 인간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공간에서 장소로의 변화를 강조한 이래로, 사회학, 인류학, 문화지리학, 환경심리학, 건축, 관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로 고객이나 지역주민의 정확한 이해, 고객의 이해에 기반 한 마케팅, 시설 및 공간 계획, 고객의 이해에 근거 한 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설과 공간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용자에 대한 이해,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 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도서관계에서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장소로서의 도서관 혹은 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소로서의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라든지 기록문화의 보존이라든지 고대도서관에서부터 존재한 개념이지만 도서관을 장소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장소성이라는 말은 직접 쓰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Bosser 2003)』과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즐기는 장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심장: 우리가 사랑하는 도서관(Burger 2007)』과 같은 저서의 출현은 도서관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장소로서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Bennett은 정보가 점차 디지털 혹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개 이용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도서관 장소 설계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Bennett 2003, 4). 그 후 2005년에 Bennett 등이 편찬한 『Library as Place: Rethinking Roles, Rethinking Space』이 출간되면서 도서관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저서에는 ‘디지털 휴머니스트를 위한 인터넷 카페’,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 설계’ 등 장소성과 관련된 논문 6편이 수록되어 있다(Bennett et al. 2005). 2007년에는 Buschman과 Leckie가 도서관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모아 『The Library as Place: History, Community, and Culture』를 공동, 편찬하였고, 이 저서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 장소성, 도서관 장소성과 문화형성,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 장소성, 공공 및 대학도서관의 장소성 등에 관한 논문 16편이 수록되어 있다(Buschman and Leckie 2007). 최근에 들어서도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소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Jackson, Hahn 2011; Elmborg 2011).

국내의 경우, 차미경은 유비쿼터스 정보 환경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물리적 장소는 이용자에게 여전히 중요한 공간임을 확인하고, 유비쿼터스 공간의 개방성과 상호 작용성을 고려한 정보 공간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차미경 2006). 이정호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정호 2011)와 공공도서관의 장

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이정호 2012)를 연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해외의 경우, 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정 연구자에 한해 한 두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장소성에 관한 연구의 범위는 대체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공간 배치나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실정에 있다.

4. 초·중·고 학생의 인지발달과 장소성

도서관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장소성과 장소성의 형성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단일 집단 혹은 포괄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소성을 규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세부 집단의 특성에 따른 장소성과 형성구조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강도원 등은 전체적인 고객의 장소성 외에 단순 소비 집단, 문화적 소비 집단, 소비 준거 집단 등 고객의 특성에 따른 장소성의 차이를 규명하였고, 집단 특성에 따른 장소성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강도원, 최창규 2012, 377).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학제 편성 단위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보면, 14-16세에 중학교, 17-19세에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8세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에 이르기까지 인지발달 및 심리·사회적 발달단계가 매우 다양한 이용자층이 존재하게 된다. 교육학 및 인지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인지발달 단계를 제시한 인지심리학자 Piaget는 감각운동기(출생 직후 ~ 2세: 아동의 행동은 자극에 의해 반응), 전조작기(2세 ~ 6, 7세: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구체적 조작기(7~11세: 보존 개념, 유목화, 서열화), 형식적 조작기(11, 12세 이후: 가설적 사고, 과학적 사고, 추상적 사고)로 구분하고 있다(이경화 외 2009, 30-34). 또한 Erikson은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 발달 단계를 1단계(출생-1.5세: 신뢰감-불신감), 2단계(1.5-3세: 자율성-수치, 회의), 3단계(3-6세: 주도성-죄의식), 4단계(6-12세: 근면성-열등감), 5단계(12-18세: 자아정체감-역할 혼미), 6단계(18-24세: 친밀감-고립감), 7단계(24-54세: 생산성-침체감), 8단계(54-사망: 자아통정-절망감)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러한 인지적 차이에 근거하여 Hart와 Moore(1973)는 <표 1>과 같이 발달단계에 따라서 공간인지 준거체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Hart와 Moore의 공간인지 준거체계

Piaget 인지발달	공간인지 체계
전조작기(2-7세)	자기중심적 준거 체계
	· 자신과 공간과의 관계를 자기중심으로 참고 준거에 의해 결정하는 단계 · 지각자가 이동을 하면 모든 공간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됨
구체적 조작기(7-11세)	고정된 준거체계
	· 자기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준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거리, 방향에대한 개념이 생긴 · 고정된 방향이나 고정된 사물을 참조하여 자기중심 성향에서 벗어남
형식적 조작기(11세 이후)	통합된 좌표체계
	· 조직화되고, 구체적인 준거체계 · 요소들과 지형적 요소들이 연관됨

이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인지발달 단계로 보나 심리·사회발달 단계로 보나 하나의 모집단으로 보기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 설계와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이용자 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초·중·고등 학생 간의 장소성의 차이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장소성 형성의 구성요소, 장소성 형성구조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설계

1. 연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광역시 외에 각 시도의 중·소도시(읍면 포함)로 구분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을 4개 권역(서울·수도권, 대전·충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씩 총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약 600여명의 학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상 학교의 선정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750여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일정 간격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 하였다. 설문문항은 네이버오피스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 온라인 주소를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사서교사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항목별로 결측 치가 있는 데이터 혹은 불성실한 데이터 10개를 제외한 590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은 SPSS19, 장소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소애착, 장소가치, 행동의도와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AMOS19를 각각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표집 학교의 교사(사서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온라인으로 수집, 처리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변인과 설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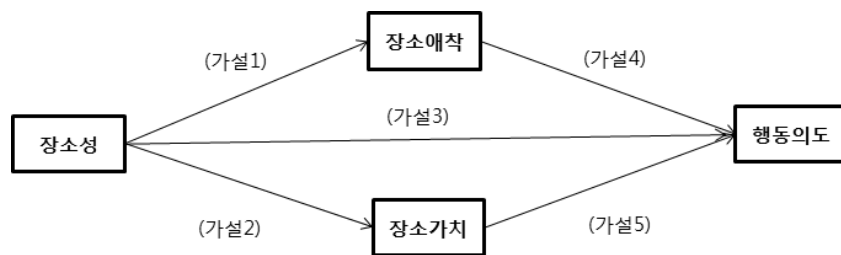
구성변인		설문 내용
장소성	물리적 요소	A-1 학교도서관은 깨끗하고 환경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다. A-2 학교도서관은 실내온도와 습도가 적절하다. A-3 학교도서관은 공간이 넓고 자유롭다. A-4 신문, 잡지, 도서,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가 있는 곳
	활동·행태적 요소	A-5 책,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곳 A-6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장소 A-7 학습과제(숙제)를 수행하는 장소 A-8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 A-9 보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골라서 독서하는 장소 A-10 무료로 책을 빌려보는 장소 A-11 담당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도와주는 곳 A-12 친구들과 토론하는 장소
	심리적 요소	A-13 다양한 경험(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A-14 탐구와 도전하는 장소 A-15 편안하고 분위기가 좋은 곳 A-16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 A-17 조용하게 혼자서 쉬면서 사색(생각)하는 장소
장소애착	B-1 나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애착심(감)을 갖고 있다. B-2 나는 학교도서관하면 왠지 그리운 마음이 든다. B-3 나는 학교도서관하면 왠지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B-4 학교도서관은 나에게 매우 특별하다 B-5 학교도서관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B-6 나는 학교의 어떤 곳보다 학교도서관이 좋다 B-7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마다 학교도서관을 방문하는 편이다.	
장소가치 인식	C-1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는 가치가 있다. C-2 학교도서관은 꼭 필요하고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C-3 학교도서관은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행동(행위)의도	D-1 학교도서관 방문(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D-2 나는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것이다. D-3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학교도서관 이용을 추천(권장)할 것이다.	

설문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성, 장소애착, 장소가치 인식, 행동의도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성변인 및 각 설문문항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백선희(2004), 김혜영과 김세준(2014), 이정호(2012)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설문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각 문항별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문항의 신뢰도 분석, 초·중·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SPSS19를 사용하였고, 장소성·장소에착·장소가치인식·행위의도 간의 인과관계 즉, 장소성 형성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AMOS19를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장소성 형성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형성된 장소성이 장소에착, 장소가치인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발달단계나 정보이용 행위에 차이를 보이는 초·중·고 학생들 간에 장소성 형성과 장소에착, 장소가치, 행위의도 변인간의 인과구조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학교도서관 장소성 관련 요소간의 연구모형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소성, 장소에착, 장소가치, 행동의도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H1):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은 개개 학생의 판단인 장소에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H2):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은 개개 학생의 판단인 장소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H3):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H4):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에착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5(H5):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가치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IV. 초·중·고 학생 간 차이 및 모형 검증

1.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학교 급별	초등학생	200	33.9	590(100%)
	중학생	180	30.5	
	고등학생	210	35.6	
소재지	수도권	90	15.3	590(100%)
	대전·충청권	191	32.4	
	대구·경상권	197	33.4	
	광주·전라권	112	19.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	288	48.8	590(100%)
	중소도시·읍면	302	51.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590명이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200명(33.9%), 중학생 180명(30.5%), 고등학생 210명(35.6%)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90명(15.3%), 대전·충청권 191명(32.4%), 대구·경상권 197명(33.4%), 광주·전라권 112명(1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유형별로 보면 특별시·광역시 288명(48.8%), 중소도시·읍면 지역이 302명(51.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의 집단 간에 장소성 인식에 대한 차이와 장소성 형성의 구조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재지, 지역 유형으로는 특별히 분석하지 않았으며 소재지나 지역 유형을 제시한 것은 표본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30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Alpha) 값은 .95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도 장소성(A1-A17)의 신뢰도 .899, 장소애착(B1-B7)의 신뢰도 .930, 장소가치(C1-C3)의 신뢰도 .883, 행동의도(D1-D3)의 신뢰도 .885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설문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초·중·고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초·중·고등학생간의 장소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장소성과 관련된 잠재변수 4가지 중에서 장소가치와 행동의도는 5점 척도로 볼 때 평균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소성 4, 2, 장소애착 3.4로 나타났다. 장소애착은 3.4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장소성, 장소가치와 행동의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초·중·고등학생의 구성요인별 차이 분석

구성요인		N=590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Scheffe Dunnett	
장소성 (4.2)	물리적 요소(A1-A4) (4.4)	초	200	4.4913	.63769	3.838	.022	초>중
		중	180	4.3125	.72074			
		고	210	4.4500	.60737			
	활동·행태적 요소(A5-A12) (4.0)	초	200	4.1775	.61024	9.293	.000	초>중 초>고
		중	180	3.9660	.64795			
		고	210	3.9262	.62702			
	심리적 요소(A13-17) (4.2)	초	200	4.2691	.58481	4.320	.014	초>중
		중	180	4.1013	.63025			
		고	210	4.1350	.57675			
장소애착(B1-B7) (3.4)		초	200	3.4343	.81719	.384	.681	-
중	180	3.3698	.79744					
고	210	3.3741	.83179					
장소가치(C1-C3) (4.5)		초	200	4.5133	.66569	.500	.607	-
중	180	4.4870	.69257					
고	210	4.5571	.74369					
행동의도(D1-D3) (4.5)		초	200	4.5667	.64018	.482	.618	-
중	180	4.4963	.70336					
고	210	4.5476	.79546					

장소성의 경우에 구성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요소(A1-A4)는 평균 4.4로 심리적 요소(A13-A17)의 평균 4.2, 활동·행태적 요소(A5-A12)의 평균 4.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작은 차이이지만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 중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17개의 관측변수(설문문항) 즉,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초·중·고 학생의 장소성 형성요소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Scheffe Dunnnett	
물리적 요소	A1(청결) 4.56	초	200	4.61	.664	1.659	.191	-
		중	180	4.48	.721			
		고	210	4.58	.646			
	A2(쾌적) 4.56	초	200	4.65	.655	3.596	.028	초>중
		중	180	4.44	.800			
		고	210	4.56	.782			
	A3(넓음) 4.39	초	200	4.44	.860	5.219	.006	초>중 중<고
		중	180	4.23	.939			
		고	210	4.49	.720			
	A4(다양) 4.18	초	200	4.27	.970	1.591	.205	-
		중	180	4.09	.990			
		고	210	4.17	.933			
활동 형태적 요소	A5(활용) 4.32	초	200	4.41	.869	2.232	.108	-
		중	180	4.22	.923			
		고	210	4.33	.893			
	A6(수업) 4.25	초	200	4.26	.958	5.172	.006	중<고
		중	180	4.09	.905			
		고	210	4.38	.823			
	A7(숙제) 3.69	초	200	3.87	1.106	5.795	.003	초>고
		중	180	3.75	1.167			
		고	210	3.48	1.238			
	A8(인터넷) 2.93	초	200	3.34	1.429	13.638	.000	초>중 초>고
		중	180	2.87	1.443			
		고	210	2.60	1.418			
	A9(독서) 4.63	초	200	4.72	.619	2.941	.054	초>고
		중	180	4.61	.736			
		고	210	4.56	.725			
	A10(무료) 4.70	초	200	4.79	.517	4.361	.013	초>고
		중	180	4.69	.599			
		고	210	4.61	.677			
	A11(친절) 4.76	초	200	4.85	.422	6.977	.001	초>중
		중	180	4.64	.691			
		고	210	4.78	.538			
	A12(친구) 2.90	초	200	3.19	1.444	6.701	.001	초>고
		중	180	2.87	1.447			
		고	210	2.66	1.511			
심리적 요소	A13(경험) 4.05	초	200	4.05	1.081	1.032	.357	
		중	180	3.96	1.032			
		고	210	4.12	1.124			
	A14(도전) 4.05	초	200	4.09	1.026	.559	.572	
		중	180	3.98	1.062			
		고	210	4.07	1.061			
	A15(편안) 4.57	초	200	4.60	.680	.336	.715	
		중	180	4.55	.679			
		고	210	4.55	.789			
	A16(재미) 4.33	초	200	4.38	.889	.753	.471	
		중	180	4.27	.913			
		고	210	4.35	.958			
	A17(사색) 4.03	초	200	4.08	1.086	.401	.670	
		중	180	3.99	1.104			
		고	210	4.00	1.038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척도로 볼 때 최저 2.90에서 최고 4.70에 이르기까지 보통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개 요소 모두 장소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의 요소 중 A2(실내온도와 습도가 적절하여 쾌적함), A3(공간이 넓고 자유로움), A6(자료 활용 수업 장소), A7(숙제 수행 장소), A8(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 A9(마음대로 독서하는 장소), A10(무료로 책을 빌려보는 장소), A11(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곳), A12(친구들과 토론하는 장소) 등의 요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서 장소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등 분산을 가정한 scheffe, 등 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Dunnett에 의한 사후분석에서도 유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도서관은 다양한 경험, 도전과 탐구,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곳, 사색하는 곳 등 심리적 요소가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소성과 관련된 구성요인 장소애착에 대한 7개 설문문항의 기술 통계와 초·중·고 학생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초·중·고 학생의 장소애착 차이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Scheffe/Dunnett
B1(애착 (4.14))	초	200	4.21	1.004	.699	.498	
	중	180	4.12	.993			
	고	210	4.09	1.056			
B2(그리움 (3.55))	초	200	3.73	1.214	3.610	.028	초>중
	중	180	3.39	1.270			
	고	210	3.50	1.310			
B3(가고 싶은 곳 (4.11))	초	200	4.09	1.057	.031	.969	
	중	180	4.11	1.067			
	고	210	4.11	1.056			
B4(특별한 곳 (3.94))	초	200	3.91	1.172	.133	.875	
	중	180	3.96	1.095			
	고	210	3.95	1.193			
B5(적합한 장소 (4.10))	초	200	4.09	1.088	.061	.941	
	중	180	4.09	1.015			
	고	210	4.12	1.111			
B6(선호 (3.98))	초	200	3.94	1.128	.200	.819	
	중	180	3.99	1.109			
	고	210	4.01	1.170			
B7(방문하는 편 (3.89))	초	200	3.99	1.199	1.461	.233	
	중	180	3.89	1.179			
	고	210	3.78	1.327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척도로 볼 때 최저 3.55에서 최고 4.14에 이르기까지 보통 수준 이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애착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 요소 모두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장소애착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장소애착에 대한 차이는 B2(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든다)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 학생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가치에 대한 인식과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생 등이 학교도서관에 대해 갖고 있는 장소가치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볼 때 최저 4.39에서 최고 4.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Scheffe/Dunnett 사후분석에 의한 검증 결과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 장소애착 혹은 가치인식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 즉, 행동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5점 척도로 볼 때 최저 4.48에서 최고 4.59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Scheffe/Dunnett 사후분석에 의한 검증 결과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초·중·고 학생의 장소가치와 행동의도 차이 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Scheffe/Dunnett	
장소가치인식	c1(서비스가치) (4.39)	초	200	4.39	.837	.129	.879	-
		중	180	4.38	.847			
		고	210	4.42	.915			
	c2(꼭 필요) (4.57)	초	200	4.56	.735	.350	.705	-
		중	180	4.54	.712			
		고	210	4.60	.808			
	c3(이용 가치) (4.60)	초	200	4.60	.665	1.127	.325	-
		중	180	4.54	.688			
		고	210	4.65	.763			
행동의도	d1(만족) (4.59)	초	200	4.60	.673	.972	.379	-
		중	180	4.53	.736			
		고	210	4.63	.748			
	d2(방문의도) (4.55)	초	200	4.56	.755	.040	.961	-
		중	180	4.55	.711			
		고	210	4.53	.939			
	d3(이용 추천) (4.48)	초	200	4.55	.728	1.274	.281	-
		중	180	4.41	.864			
		고	210	4.48	.934			

3. 장소성 형성구조 분석

학교도서관 장소성과 관련된 구성변인들 장소애착, 장소가치 인식, 행동의도 간에 인과 구조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AMOS 19버전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 간의 장소성 형성구조의 차이와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간의 차이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해야 한다. AMOS19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CMIN/p, RMR, GFI, AGFI, CFI, NFI, RMSEA 등의 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초·중·고 학생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AMOS19에 적용한 결과의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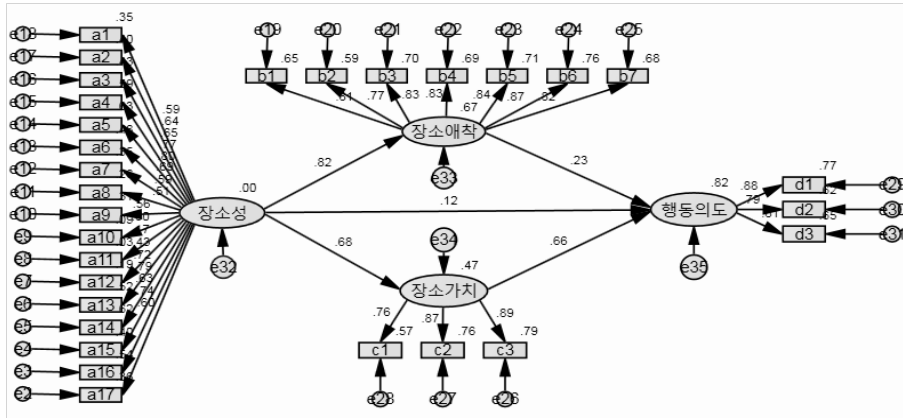
<표 8> 초·중·고 학생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적합도 기준
CMIN/p	0.000	0.000	0.000	p > 0.05
RMR	0.052	0.010	0.001	0.05 이하
GFI	0.892	0.866	0.989	0.9 이상
AGFI	0.882	0.892	0.938	0.9 이상
CFI	0.900	0.991	1.079	0.9 이상
NFI	0.933	0.929	0.915	0.9 이상
RMSEA	0.030	0.016	0.007	0.05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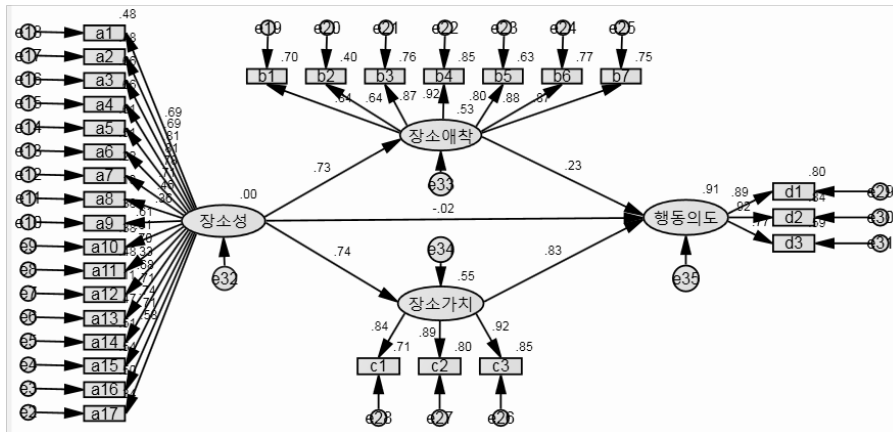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NIN/p 값은 전통적인 카이제곱 값을 나타내며, 초·중·고 모형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인 카이제곱 값을 통한 검정의 경우, 표본의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MR 값은 초·중·고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GFI, AGFI 값은 초등학생, 중학생 모형의 경우 모두 0.9 이상의 기준 값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충족 근사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CFI, NFI, RMSEA의 경우에 3가지 모형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17개 요소의 표준화 계수는 0.5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애착, 장소가치, 행동의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도 모두 0.5 이상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장소성이라는 잠재변수가 A1(쾌적함)의 관측변수에 대해 59.0%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나머지 41%는

오차 e18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낸다. 장소성은 장소애착에 8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장소가치에 대해서는 6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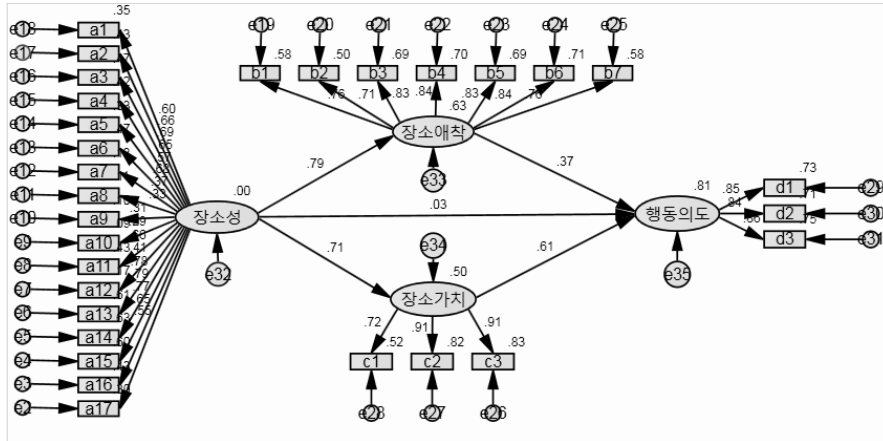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교 연구모형에 의한 경로분석



<그림 3> 중학생 연구모형에 의한 경로분석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 연구모형에 의한 경로분석에서 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17개 요소의 표준화 계수는 0.5 이상을 보이고 있다. 장소애착, 장소가치, 행동의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도 모두 0.5 이상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장소성은 장소애착에 7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장소가치에 대해서는 7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소애착은 행동의도에 2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장소가치에 대한 인식은 행동의도에 83%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장소애착 보다는 장소가치에 대한 인식이 행동의도에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고등학생 연구모형에 의한 경로분석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연구모형에 의한 경로분석에서 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17개 요소의 표준화 계수는 0.5 이상을 보이고 있다. 장소애착, 장소가치, 행동의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도 모두 0.5 이상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장소성은 장소애착에 7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장소가치에 대해서는 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소애착은 행동의도에 3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장소가치에 대한 인식은 행동의도에 61%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장소애착 보다는 장소가치에 대한 인식이 행동의도에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초·중·고등학생의 연구모형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장소성은 장소애착, 장소가치 인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초·중·고 학생의 연구모형 가설 판정

가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표준화 계수	CR	P	채택 여부	표준화 계수	CR	P	채택 여부	표준화 계수	CR	P	채택 여부
H1	.817	8.076	0.001	채택	.726	7.145	0.001	채택	.794	7.237	0.001	채택
H2	.683	7.435	0.001	채택	.739	7.467	0.001	채택	.708	7.275	0.001	채택
H3	.116	1.108	0.268	기각	-.024	-0.309	0.757	기각	.027	0.279	0.780	기각
H4	.225	2.539	0.011	채택	.230	3.919	0.001	채택	.373	4.506	0.001	채택
H5	.664	8.711	0.001	채택	.830	11.523	0.001	채택	.614	8.443	0.001	채택

※ H1(장소성→장소애착), H2(장소성→장소가치), H3(장소성→행동의도), H4(장소애착→행동의도), H5(장소가치→행동의도)

<표 9>에서 표준화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의미하며, CR은 기각비율, p는 유의확률을 나타낸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인과계수(Estimate)를 표준오차(SE)로 나눈 기각비율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구모형에서 연구가설 H3(장소에 착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를 제외하고 모든 연구가설이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애착은 형성되어 있으나 이 장소애착이 바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도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장소성 형성 효과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경로분석에서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효과라 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의 연구모형에 따른 총 효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초·중·고 학생의 변수 간 효과분석

가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H1(장소성←장소애착)	.817	.726	.794
H2(장소가치←장소성)	.683	.739	.708
H3(행동의도←장소성)	.753	.756	.758
H4(행동의도←장소애착)	.225	.230	.373
H5(행동의도←장소가치)	.664	.830	.614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설1(장소성→장소애착), 가설3(장소성→행동의도), 가설2(장소성→장소가치), 가설5(장소가치→행동의도), 가설4(장소애착→행동의도) 순서로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설5(장소가치→행동의도), 가설3(장소성→행동의도), 가설2(장소성→장소가치), 가설1(장소성→장소애착), 가설4(장소애착→행동의도)의 순으로 영향력의 순서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우리 인간은 다양한 공간을 거쳐 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특정 공간을 체험하면서 장소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 즉, 장소성을 갖게 된다. 장소성에 대한 개념은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자의 요구와 문화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또한 공간임과 동시에 장소이다. 그럼에도 학교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소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간의 차이를 밝힌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핵심 이용자층인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규명하고, 장소애착과 장소가치, 행동의도와의 인과구조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들 집단 간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24개 학교의 초·중·고등학생 590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초·중·고 학생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은 SPSS19, 장소성 형성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AMOS19를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해 갖고 있는 장소성 형성 요소로는 물리적 요소, 활동·행태적 요소, 심리적 요소 모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물리적 요소, 활동·행태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서관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 도전과 탐구가 가능한 곳,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곳, 사색하는 곳 등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생의 구분 없이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소성과 관련된 구성변인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애착은 5점 척도로 3.4, 장소가치 인식은 4.5, 행동의도는 4.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간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중·고 학생의 구분 없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애착이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로서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소성은 장소애착과 장소가치를 매개로 학교도서관을 재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행동의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소성, 장소애착, 장소가치, 행동의도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RMR, GFI, AGFI, CFI, NFI, RMSEA의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며, 초·중·고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여부를 검증한 결과 초·중·고 학생 모형 모두 가설1(장소성→장소애착), 가설2(장소성→장소가치), 가설4(장소애착→행동의도), 가설5(장소가치→행동의도)는 채택되었고, 가설3(장소성→행동의도)는 기각되었다.

넷째, 장소성 관련 요인간의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설 1(장소성→장소애착), 가설3(장소성→행동의도), 가설2(장소성→장소가치), 가설5(장소가치→행동의도), 가설4(장소애착→행동의도) 순서로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설5(장소가치→행동의도), 가설3(장소성→행동의도), 가설 2(장소성→장소가치), 가설1(장소성→장소애착), 가설4(장소애착→행동의도)의 순으로 영향력의 순서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은 서비스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반영하여 시설과 장비 등의 환경은 물론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장소성은 특정 요인 보다는 물리적 요소, 활동·행태적 요소, 심리적 요소의 기능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의 공간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장소성 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활동·행태적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공간 설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리적 요소는 초·중·고 학생의 구분 없이 학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은 초·중등 학생들의 장소애착과 장소가치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소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시설, 공간 설계는 물론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도원, 최창규. 2012. 방문자 특성에 따른 장소성 인식과 행동의도와의 인과구조 분석. 『국토계획』, 47(3): 363-379.
- 김미영, 문정민. 2013. 장소성 형성의 공간구현 전략과 실행요소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6): 190-198.
- 김민숙. 2007. 『대형할인점 실내공간의 장소성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전공
- 김혜영, 김세준. 2014. 박물관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애착과 장소가치인식,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30): 185-217.
- 백선희. 2004.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888-906.
- 은연정, 김시중. 2010. 인사동문화지구의 장소마케팅이 방문객 만족 및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국토지리학회지』, 44(3): 415-425.

- 이경화 외. 2009.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남휘, 최창규. 2011. 장소성 형성요인간의 인과구조 실증적 분석. 『국토계획』, 46(3): 19-36.
- 이민아. 2015. 내가 사는 이곳은 장소(Place)인가? 공간(Space)인가?. 황룡닷컴 홈페이지
 <<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 [인용 2017. 3. 24].
- 이정미, 곽동화, 천혜선. 2010. 어린이 도서관에 있어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19(5): 198-208.
- 이정호. 2011.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09-234.
- 이정호. 2012.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53-278.
- 차미경. 2006. 유비쿼터스 시대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325-343.
- 최막중, 김미옥. 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 분석. 『국토계획』, 36(2): 153-162.
- 한범수, 김희영, 박상훈. 2008. 문화관광 콘텐츠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소성 강화. 『서울도시연구』, 9(4): 3-22.
- 홍경구. 2009. 주제가로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 255-262.
- Bennett, Scott. 2003. *Libraries Designed for Learning*. Washington, D.C.: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Bennett, Scott et al. 2005. *Library as Place: Rethinking Roles, Rethinking Space*. Washington, D.C.: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Bosser, Jacques. 2003. *The Most Beautiful Libraries in the World*. New York: Abrams Publisher.
- Burger, Leslie. 2007. *Heart of the Community: The Libraries We Love*. Great Barrington, MA: Berkshire Publishing Group.
- Buschman, John E., Gloria J. Leckie. 2007. *The Library as Place: History, Community, and Culture*. Westport, Connecticut: Libraries Unlimited.
- Elmborg, James. 2011. "Libraries as the Spaces Between Us: Recognizing and Valuing the Third Space."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0(4): 338-350.
- Greene, T. C. 1996. *Cognition and the Management of Place*. In *Nature and the Human Spirit* edited by B. Driver. Pa: Venture Publishing.
- Guiliani, M. V., and R. Feldman.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267-74.
- Hart, R. A., G. Moore. 1973. *The Development of Spatial Cognition*. Chicago: Aldine.
- IFLA School Libraries Section Standing Committee. 2015. *IFLA School Library Guidelines*. Den Haag, Netherland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Jackson, Heather Lea and Trudi B. Hahn. 2011. “Serving Higher Education’s Highest Goals: Assessment of the Academic Library as Pla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2(5): 428-42.
- Mathwick, C., N. K. Malhotra and E. Rigdon. 2001. “Experiential valu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in the catalog and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77: 39-56.
- Moore, R. L. and A. R. Graefe. 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s*, 16: 17-31.
- Proshansky, H. M., A. K. Fabian and R. Kaminoff. 1983.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57-83.
-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teele, Fritz. 1981. *The Sense of Place*. Boston, CBI Pub Co.
- Weise, Frieda. 2004. “Being there: the library as place.” *Journal of Medical Libraries Association*, 92(1): 6-1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ik, Seon-hae. 2004. “The Introduction of Art Festivals in Small Cities and the Creation of Placenes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6): 888-906.
- Cha, Mik-yeong. 2006. “A Study on the Library Space in the Emerging Ubiquitous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325-343.
- Choi, Mack-joong, Mi-ok Kim. 2001. “Empirical Analysis of Components and Economic Values of the Placenes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6(2): 153-162.
- Eun, Yeon-jung, Si-joong Kim. 2010. “The Effect of the Place Marketing of Insadong

- Cultural District on the Visitor'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4(3): 415-425.
- Han, Beom-soo, Hee-Young Kim, Sang-Hun Park. 2008. "Strengthening the Placeness by Networks of Cultural Tourism Contents." *Seoul studies*, 9(4): 3-22.
- Hong, Keong-Gu. 200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nd Economic Value of Placenes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1): 255-262.
- Kang, Do-Won, Chang-Gyu Choi. 2012. "Causality Analysis of Placeness Cogni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by Visitors Character."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3): 363-379.
- Kim, Hae-Young, Sae-June Kim.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Formative Factors of Placeness on Place Attachment, the Value Perception and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in Museum." *Journal of Arts and Management and Policy*, 30: 185-217.
- Kim, Mi-Young, Jeong-Min Moon. 2013. "A Study on the Implementing Strategies and components of Space for the Placeness Form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2(6): 190-198.
- Kim, Min-Sook. 2007. *A Study on the Placeness Components of Hypermarket in Interior Spaces*. M. A. thesis. Kookmin University, Korea.
- Lee, Gyeong-hwa. et al.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Gyoyukgwahak publisher.
- Lee, Jeong-Ho. 2011. "A Study on the Impact of Users Place Attachment on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09-234.
- Lee, Jeong-Ho.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53-278.
- Lee, Jeong-Mi, Dong-Wha Kwack, Hye-Sun Cheon. 2010. "A Study on the Embodying the Sense of Place in Children's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9(5): 198-208.
- Lee, Mina. 2015. *This is where I live, place or space?*
<<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 [cited 2017. 3. 24].
- Lee, Nam-Hwi, Chang-Gyu Choi.. 2011. "Causality of Placeness Forma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6(3): 19-36.